

종합

360억 투자 플랜트 업체와 협약...3개월만에 입장 바뀌 목포시 '묻지마 투자 유치' 곤경

市 "씻가루·분진 날려 수출용 기아차 피해... 시설 불가"

업체·항만청 "대기업 입맛 맞춘 일관성 없는 행정" 반발

목포시가 해양플랜트 생산·수출기업과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지 3개월 만에 입맛을 번복,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플랜트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나서 '묻지마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목포시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목포항만공사 등은 지난 10월 25일 '목포항만 활성화를 위한' (주)한영산업과 '목포 신항에 플랜트 시설을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투자유치 협약을 했다. 끌리크레인과 선박 메가블록, 해양플랜트 등을 생산해 국내 및 호주, 유럽 등지에 수출

하는 한영산업은 협약체결 이후 대규모 부지를 매입하고 700t급 크레인을 비롯한 자체 발주용 끝내는 등 플랜트 시설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연간 20만대의 자동차를 신항을 통해 수출하는 기아자동차가 제동을 걸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자동차 수출항 인근에 플랜트 시설이 들어서면 씻가루와 분진이 날려 수출용 자동차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게 이유다. 기아자동차는 플랜트 시설이 들어서면 타 항으로 이전을 검토한다는 공문을 대항동 등 하역 3사에 보내기까지 했다.

이에 목포항만청은 최근 하역 3사와 한영산업 등을 불러 대책 회의를 열었다. 기아차 측에도 '무엇이 문제인지' 밝혀 달라고 했지만, 기아차는 회의에 불참했다. 목포항만청과 신항만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공공' 앞을 사야 한다는 입장이다. 목포항만청과 한영산업은 기아차에 '정말 씻가루가 날리는지' 환경영향평가를 하자고 제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영산업 관계자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아차는 무조건 안된다고 통보하고, 목포시도 검증보다는 기아차편을 들어 클리크를 운운하며 플랜트 설치를 불허하는 것은 신의를 저버린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한영산업은 신항만 배후부지와 다목적 부지 내 6만 6270㎡에 36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이에 대해 해당 업체와 목포항만청 등은 어이가 없다는 분위기다. 투자유치한 기업의 입장은 생각지도 않고 대기업의 입맛만 맞추는 일관성 없는 목포시의 행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목포항만청과 한영산업은 기아차에 '정말 씻가루가 날리는지' 환경영향평가를 하자고 제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영산업 관계자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아차는 무조건 안된다고 통보하고, 목포시도 검증보다는 기아차편을 들어 클리크를 운운하며 플랜트 설치를 불허하는 것은 신의를 저버린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한영산업은 신항만 배후부지와 다목적 부지 내 6만 6270㎡에 36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영암·보성 시 의심 추가 신고...전남도 긴장

진정 양상을 보이던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또다시 접수되면서 전남도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전남도는 20일 "영암군 덕지면 오리농장 2곳과 보성군 노동면 오리농장 1곳 등 3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영암 오리농장은 종오리·육용오리농장 등 2곳, 보성은 종오리 농장 1곳

으로 산란율이 15~30% 가량 떨어지는 등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반에 신고된 농장은 기존 고병원성 AI 농장과 역학관계는 없지만 영암 오리농장의 경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10km 이내 '경계지역'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행복 창조마을 시범 사업' 계림 1동·상무 2동 등 5곳 확정

광주시 동구 계림1동, 서구 상무2동, 남구 방림1동, 북구 임동, 광산구 어룡동 등 5개 동이 '행복한 창조마을 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이들 5개 동은 광주시로부터 2억원의 기본사업비를 지원받고, 중앙정부와 광주시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해 자체 사업에 필요한 추가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20일 "북구 시화마을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된 배경은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는 점이며 이를 모델로 해 5개 자치구마다 1곳씩 시범사업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5개 동은 ▲주거환경 개선 ▲복지·교육·일자리 ▲문화 ▲공동체 활동 등 모두 4개 분야 중 중점추진 분야를 정해 각각의 주제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계림 1동은 '경양방죽터 추억복원', 상무 2동은 '길고 싶은 골목 및 공원 조성', 방림 1동은 '꽃길 조성·작은 도서관·동네 갤러리'를 주제로 정했다. 또 임동은 '마을 숲·생태자전거·베이스볼 먹거리 골목 조성' 그리고 어룡동은 '꽃길 조성, 문화재 정비, 우리 밭 시범단지 조성' 등을 사업주제로 내놓았다.

광주시는 시·구·동 담당 공무원과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내에 워크숍을 개최, 상호 사업계획 교류 및 주민 참여방안 등을 논의하고 다음달에 세부 사업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의 성과가 주민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있기 때문에 주민, 기업, 시민단체 등이 스스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상향식 방식의 철저한 '주민주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단순한 시설개선을 철저히 배제하고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투자협약

전남도는 20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금강중공업(주)과 (주)해성이엠씨, KIA자동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황남석 금강중공업(주) 대표이사, 정해관 (주)해성이엠씨 대표이사, 김조호 KIA타이어즈 단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박은식 합평군수, 정광덕 영암군수, 홍경섭 나주시장, (전남도 제공)

삼성 광주공장 백색가전 목포항서 수출

냉장고·세탁기 등 내달 중순부터 선적

삼성이 생산하는 백색 가전 제품이 목포 신항을 통해 수출된다. 목포시는 20일, 국내외 선사와 화물주 등을 대상으로 목포항 포트세일을 통해 삼성전자가 광주공장의 백색가전 화물을 신항을 통해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광주공장에서 중국 상하이 인근의 삼성전자 현지 법인으로 수출하는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백색 가전제품 일부를 다음 달 중순부터 목포 신항을 통해 수출하기로 했다고 목포시는 설명했다.

수출 물량은 1주일에 50TEU(20피트 컨테이너)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며, 지난해 목포시와 항로 개설 협약을 하고 신항~중국 상하이항을 운항하는 양해해운이 화물 전량을 실어 나른다.

목포시 관계자는 "삼성전자 광주공장에서는 월 1만TEU의 물량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상하이 물량이 안정적으로 신항을 통해 선적되면 광주지역 수출입 기업, 화주들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여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전남도 투자협약. 전남도는 20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금강중공업(주)과 (주)해성이엠씨, KIA자동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황남석 금강중공업(주) 대표이사, 정해관 (주)해성이엠씨 대표이사, 김조호 KIA타이어즈 단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박은식 합평군수, 정광덕 영암군수, 홍경섭 나주시장, (전남도 제공)

기아차 합평 야구장 건립비 등 3개사와 284억 투자협약

전남도는 20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기아자동차 등 3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84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아자동차는 합평군 학교면 8만2000㎡ 부지에 148억원을 투자해 야구장·합숙소·실내 야구장 등을 포함한 기업 연수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루 40명 안팎의 고용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기아차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2단계로 연수구장 인근에 연수시설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산단 정전때 광양제철 발전기도 멈췄다

정부 합동조사단 밝혀...정전 사태와 관련성 여부 주목

지난 17일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정전 사태 당시 인근 광양제철소 내 부생복합발전소 발전기의 가동이 중단된 사실이 밝혀져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포스코파워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8분 여수산단 정전 발생 당시 광양제철소 내에 있는 회사 소유 14만2000kW 용량의 부생발전소 발전기 2대도 동시에 멈춰 1시간20분가량 가동이 중단됐다. 피해 규모는 2000여만원 정도다.

부생발전소 발전기 가동 중단은 여수산단 정전 사고를 정밀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졌다.

포스코파워는 상업용 전력을 생산해 한전에 판매하는 포스코의 발전전

문 자회사로, 광양시내 한전 사곡변 전소로 돈을 받고 송전하고 있다.

포스코파워 측은 발전기 가동 중단 이유를 저전압 유입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원인 규명을 밝히고 있다. 회사 측은 발전기 가동 중단이 여수산단 정전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부생발전소 설비는 효율이 높아 민감하다"며 "약간의 전압 차만 발생해도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감지해 정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4079@

빛의만평

- 김중두

국민정서法이 그냥 돌까요?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전남대학교(6기)
개강일시	○월요일 주간반 : 2011. 2. 28(월) 09:00 ○아간반 : 2011. 2. 28(월) 18:00
모집기간	2011. 1. 17(월)~3. 04(금)
수업기간	2011. 2. 28(월)~2011.6. 16(목) (15주 90시간)
모집인원	○기초반 : 주·아간반 각 30명 ○심화반 : 주·아간반 기존진생과 편입생
수업시간	○매주 (월요일/목요일) 주간반 09:00~12:30 아간반 18:00~21:30
수강료	₩360,000 ○광주은행: 074-107-004114(예금주:전남대평생교육원)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사)한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회장 발급 자격증 취득기회부여(2단계 수료시) ○각 학문학원 및 학원개설 및 감사추천 ○각급학교(특기)직접 발파 후 교육감 감사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공인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의 : 062)530-3873~5 ■지도교수 : 010-2611-1171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sle.jnu.ac.kr

국비지원 교육생 모집

농산물품질관리사반

★웰빙(참살이)시대의 국가공인 유망자격증★

전국 최강의 전문강사진으로 대폭교체
취업의 꿈이 현실로 - 2013년부터
의무고용추진, FTA로 더욱 중요!

1월초 개강! 수시등록가능 (주/주말반 전액석 있음)

[본원 교수진 동영상 강의 무료보강] 2개월 15만원
www.egosi.co.kr [1차 : 5월 29일 시험대비]
062)226-5050 으로 신청바람!!

★농업인·축산인·임업인 특별혜택★

◆언제든지 청강 환영!
[서승철경영학박사, 김세미농약박사, 윤종하(전) 풍관원, 초대농공사업회장, 손승운, 송상우, 전창훈교수진]

◆7·9급 농업직, 농촌지도사
18년 경력의 손승운 교수팀 직강

전농업전문원 226-5050
위치: 전남여고 건너편 역원기입구, 광주교시학원건물 1층(동부경찰서서 전남여고 쪽)

티켓몽키에서는

매일 밤 11시, 광주의 모든 곳이 반값이 됩니다!

50%~90%

http://www.t-mong.co.kr

광주의 대표 소셜커머스
티켓몽키에서 하루에 한가지!
광주의 모든것들을 반값에 드립니다.

티켓몽키 어린이 메일레이아웃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티켓몽키 입점 문의 070-7581-7766

티켓몽키에서는 광주의 모든 곳을 50%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NAVER 티켓몽키 를 검색해보세요.

2009년~2010년 서울대 12명 합격

중·고 국·영·수 전문학원

양양, 대성의 서울대반 강사진이 직접 수업합니다.
그룹반은 별도로 상담하세요!!

강사진
언어(최복수)의 2명
영어(신경찬)의 2명
수학(주석진)의 2명

일곡동 국민학원
☎(062) 574-0101

봉선동 국민영재학원
☎(062) 672-0483

가까운 지역에서 상담하세요.